

새해 새 설계

나 상 옥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지역 유망중기 지원대출 늘릴 것”

“국내·외 경제 지표가 말해주듯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 경기회복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절한 금융지원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사·연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상옥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은 지난 17일 광주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이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대출을 늘리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 화폐 교환과 외국환 신고를 위해 본부를 방문하는 지역민들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양질의 금융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지역 보다 깨끗한 화폐가 유통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유통화폐 정화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을 방침이다.

초·중·고등학생 대상 경제교육 및 경제캠프, 대학생 대상 중앙은행론 강좌와 통화정책 경시대회, 초·중등학교 교사를 상대로한 직무연수 등을 통해 대국민 경제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나 본부장은 “소의계층 초청 방문견학 행사 등 다양한 경제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성금전달과 봉사 활동, 생활편익이 어려운 지역 내 자매결연 학생에 대한 후원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지역에 봉사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본부장은 광주 살레시오고,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이후 조사국, 정책기획국, 금융시장국, 금융안정분석국 등 주요 정책부서와 금융통화위원실, 런던사무소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광주전남본부장에 부임했다.

사회적기업도 우대 대상
수요자 중심 조사·연구
사회공헌활동 적극 전개

나 본부장은 “지난해 중반기부터 모니터링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한 국내 최초의 ‘지역경제보고서’(Golden Book)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완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민, 금융시장 참가자에게도 지역경기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 본부장은 올해 지역민과 지역금융기관에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1의 지역본부 달성’이라는 포부도 숨기지 않았다.

설 앞두고 채소가격 ‘들썩’... 밥상물가 비상

풋고추·애호박·오이·양상추 등 평균 30% 올라

설을 앞두고 주요 채소가격이 크게 올라 ‘밥상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15일 현재 주요 채소의 도매가격이 전주에 비해 평균 30%가량 상승했다.

애호박(20개/상)은 전주보다 40.4% 올랐고, 취청 오이(50개/상)는 21.3%, 파프리카(5kg/상)는 26.3%,

양상추(8kg/상)는 30.7% 각각 뛰어올랐다. 특히 풋고추(10kg/상)는 전주 대비 무려 66.5% 상승했다. 한달 전과 비교하면 173.6%나 올랐다.

이처럼 주요 채소가격이 폭등한 것은 최근 전국에서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다. 실제 1월 9일부터 15일까지 평균

최저 기온은 영하 8.5로 나타났다. 지난 한 주 평균 최저기온(영하 2.8)보다 6도 가량 떨어진 셈이다.

특히 올해 겨울에는 예년보다 다소 늦게 갑작스러운 한파가 몰아치면서 채소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난방비 부담도 채소 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다.

과채류의 적정 생육 온도는 25도 가량인데 올해 농업용 전기요금이 3% 인상되면서 농가의 난방비 부담

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하우스내 온도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생육이 부진해 애호박, 고추, 파프리카 등 과채류의 화방 전환 시기가 지연되면서 원활한 공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과채류에 바이러스 질병이 발생해 낙과·부패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출하량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NH농협생명, ‘JUMP UP 워크숍’

NH농협생명 전남총국(총국장 김홍주)은 최근 농협전남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전남지역 농·축협 회원농민들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생명보험 JUMP UP 워크숍’을 가졌다. 김 총국장은 워크숍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전문금융인 육성을 다짐했다.

주간 증시 포커스

엔저 경제감속 속 국내 기업 실적 주목

지난 일주일간 국내증권시장은 뚜렷한 매수세력이 없이 제자리 걸음만을 반복했다. 4분기 실적시즌을 앞두고 거래대금은 3조원대에 머물렀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위축되었다.

지난 주 화요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일본의 11월 경상수지 적자가 5.982억엔으로 1985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며 일본증시가 급락했다.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증가로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이라는 일본당국의 전망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다. 이에 추세적인 엔화 약세는 불가피하나 향후 일본 정부가 엔화약세정책의 속도조절

에 나설 개연성이 높아 엔/원 환율 변동성은 점차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불확실성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분기 국내 대표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4.5%하향 조정되었으나 2014년 1분기 실적 전망치의 경우 하락세가 진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경기 민감주들에 있어서 실적부진 우려는 상당부분 선반영이 되었고 오히려 환율 안정화와 글로벌 수요회복 가능성을 감안하면 올해 실적 모델링의 경우 개선 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번주는 중국 4분기 GDP 발표, 미국 IT주들의 실적발표 및 일본은행 1월 금정위 등의 변수에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4분기 GDP는 양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IT주들도 예상치에 부합되는 실적이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은 시장의 예상과 달리 이번주 예정된 1월 금정위를 통해서 소비세 인상 이전에 추가 양적완화의 지를 강화시킬 경우 추가적인 엔화약세가 나타날 수 있어 국내증시에는 경계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1월이후 외국인의 누적순출 매도포지션이 3만계약을 넘고 있어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외국인 선물포지션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이번주에도 대표수출주들의 실적둔화 우려에 따라 우량주소형주의 대체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및 중국 소비의 계절적 성수기 효과가 기대되는 유통, 의료, 중국 여객수요 관련주들의 접근이 유호해 보인다.



보증공급 3600억 달성 경영전략회의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계연)은 지난 17~18일 이틀간 보성다비치콘도에서 2014년 보증공급 3,600억원 달성을 위한 경영전략회의를 가졌다. 보증공급 3,600억원의 지난해 보증실적 3,025억원(1만6683개 업체)보다 약 20% 증가된 목표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계연 이사장을 포함한 전 임직원이 참여하여 더 높은 목표 달성을 위한 팀

지점별 전략발표와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도민을 섬기는 착한 재단’의 직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계연 이사장은 “작년(40%)에 이어 올해도 보증공급 목표를 20% 더 높인 것은 아직도 우리 재단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잠재고객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올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

하는 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이 이사장 부임 이후 지역 소상공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지점개점에 노력했고, 순천, 목포, 화순 3개에 불과하던 영업점이 울산상반기에 개점하는 광주, 나주, 완도까지 합하면 11개로 늘어나게 된다.

명품황칠요리 황칠(愛)비법

황칠(愛)비법 진액은 식품첨가물 임니다. 파우치 형태로 제작되어 쉽게 식품에 첨가할 수 있으며, 특히 육류나 어류 및 장류의 잡내를 없애주며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다양한 영양과 맛을 낼 수 있는 황칠(愛)비법의 고집!!!

황칠다담(주)
안전·신뢰·정통을 위한 2013-2014